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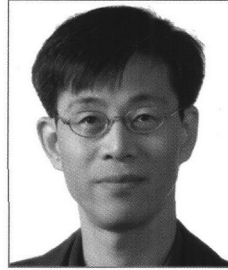
▣ 사무소 협의회



송 동 범 부회장



채 흥 석 위원장



황 기 수 이사



이 호 찬 이사



김 승 환 이사



이 성 군 이사



임 철 우 이사

사무소 협의회는 구조설계사무소(이하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지난 2월 말 첫모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송동범 부회장을 중심으로 채홍석, 황기수, 이호찬, 김승환, 이성군, 임철우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모임이후 바로 다가왔던 봄날의 따스함을 채 느끼기도 전에 어느새 벌써 뜨거운 여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모임이 있었지만 아직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해 하지 않고 조금씩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가다 보면 조만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신규업무로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물 해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내진성능 평가는 점점 그 중요성 및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은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내진성능 평가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과 함께 내진성능 평가가 회원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안하고 아울러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조물 해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구조물 철거공사 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에서 철거(해체)공사 시 철거(해체) 계획서를 사전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국토해양부는 건축구조기술사, 일부 지자체는 기술사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이에 대한 경험 및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기회손실이 우려되므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철거(해체) 계획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회원사간의 공통된 용역대가 기준을 공유하여 충실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소 협의회는 회원사의 사무소 운영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몇 가지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각자 맡은 과제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사간의 단합된 모습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절감하고 회원사간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모임의 활성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조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무소의 중복업무 및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DB를 작성하여 회원사에 제공하고, 연구소 설치 방법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규업무영역과 관련하여 해체(철거)공사 관련 용역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적절한 용역비의 선정기준 및 주요 국가별로 설계 시 고려할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희 회원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눈물겹기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근래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래왔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여전히 갈 것이라는데 그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더 합니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고귀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하고도 숭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회원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 회원사들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회원사 모두가 목소리를 합쳐야 할 때입니다. 회원사 모두의 힘을 합치는데 여러분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사무소 협의회가 그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회원사들의 권익옹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실천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믿고 디딜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사는 구조기술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무소 협의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